

“괴물”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에 관한 이야기



“박정제는 반전이 있는 인물이었죠. 저조차 다 알고 접근한 건 아니었고, 필요한 부분만 정보를 얻고 순간순간에 충실했어요.”

탄탄한 심리 추적 스릴러로 호평받으며 최근 종영한 JTBC ‘괴물’에서 열연한 배우 최대훈(40)을 15일 화상으로 만났다.

최대훈은 이종식(신하균 분)의 죽마고우이자 문주사의원 아들, 문주경찰서 수사 지원팀 경찰인 박정제로 분해 21년 전 진실에 다가갈수록 짙어지는 혼란과 고통스러운 감정을 폭발적인 동시에 디테일하게 표현해냈다.

최근 종영 스릴러 ‘괴물’ 열연 최대훈

대본 훌륭... 연출·편집에 다들 놀라

앞으로 누아르 같은 작품 도전 할 것

그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몰라서 하는 실수들이 있지만 그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약한 것이다. 그런 부분을 박정제가 담당했던 것 같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 생명(동식의 동생)을 소멸시켜버렸으니까”라고 설명했다.

박정제가 21년 전 기억을 되찾은 후 변화한 과정에 대해서는 “동식의 아픔을 많이 느끼려 했다. 혼자만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지면서 정제가 뒤늦게 그 일을 알았을 때 어떤지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다”고 했다.

최대훈은 이번 작품이 ‘웰메이드’로 호평

받은 데 대해 “누구 하나 소홀히 한 사람이 없었던 덕분이었다”면서 “특히 작품의 가장 선두에서 있었던 하균 형님께서 분위기를 잘 잡아주셨다. 권위적이지도 보수적이지도 않게, 매우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셨다. 나도 자극을 많이 받아서 열심히 준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본도 훌륭했지만, 연출과 편집에 다들 놀랐다. 모든 것이 조화를 잘 이뤘다”며 “결과적으로 ‘괴물’은 인간의 욕심, 이기심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앙대에서 연극을 전공하고 2007년 KBS 드라마 ‘열풍뿔방 흥신소’로 데뷔한 최대훈은 무대와 스크린, 안방극장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대중에게 다채로운 인상을 남겼다.

그는 “매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이전 모습은 없애고 완벽하게 새로운 인물로 접근하려 노력하는 편”이라면서 “전작 ‘사랑의 불시착’ 속 윤세준과 ‘괴물’의 박정제도 서로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다. 박정제의 경우 유약한 모습을 잘 표현하려 했다”고 말했다.

“무명 시절이 길었어요. 그런데 지칠 때쯤이면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돌파할 수 있었죠.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 ‘괴물’ 같은 작품을 덕분에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감사하게도 앞으로는 스릴러, 누아르 같은 작품에도 도전해보고 싶네요.”

/연합뉴스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시’ 2번째 12억 뷰 뮤직비디오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로 유튜브 브에서 통산 2번째 12억 뷰 뮤직비디오를 탄생시켰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 수가 15일 오전 9시 48분경 12억 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로는 처음으로 12억 뷰를 돌파한 ‘DNA’에 이어 2개월 만에 12억 뷰 한 편을 더 추가하게 됐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2019년 4월 발매된 ‘맵 오브 더 솔: 퍼스나’(MAP OF THE SOUL : PERSONA) 앨범 타이틀곡으로, 팝스타 할시(Halsey)가 피쳐링해 화제를 모았다.

발매 직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 8위로 진입한 뒤 8주 연속 차트에 들었다.

파스텔 톤의 경쾌한 연출이 돋보이는 뮤직비디오는 할시가 직접 출연해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퍼포먼스를 펼친다. 수십 명의 댄서와 호흡을 맞춘 마지막 군무 장면은 뮤지컬을 연상시킨다.

방탄소년단은 이외에도 10억 뷰를 돌파한 ‘다이너마이트’, 각 9억 뷰의 ‘페이크 러브’와 ‘미이크 드롭 리믹스’ 등 총 31편의 역대 위 조회 수 뮤직비디오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KBS ‘대박부동산’-JTBC ‘로스쿨’ 나란히 5%대 출발

퇴마와 액션에 살인사건 미스터리 구조 볼거리 제공

새 수목드라마 KBS 2TV ‘대박부동산’과 JTBC ‘로스쿨’이 나란히 5%대 시청률로 시작했다.

1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 방송한 ‘대박부동산’ 1회 시청률은 4.1%~5.3%(이하 비지상파 유료가구)를 기록했다.

첫 회에서는 퇴마 앞에선 피도 눈물도 없는 ‘대박부동산’ 사장이자 퇴마사인 홍지아(장나라 분)와 귀신을 소재로 부를 축적하는 퇴마사기꾼 오인범(정용화)이 서로 얽히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작품은 지상파 미니시리즈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오컬트 소재에 최근 모든 사람의 관심 1순위로 부동산을 집목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 자체는 ‘사람’에 집중하면서 따뜻한 분위기를 잃지 않았다.

장나라는 차가운 퇴마사로 변신해 기존과는 다른 이미지를 선보였고, 정용화도 능글맞음과 치밀함을 오가며 기존에 보여준 모습과는 다른

매력을 보여줬다. 연출 면에서도 퇴마와 액션, 코미디 톤을 자연스럽게 오가며 다양한 볼거리를 선물했다.

‘대박부동산’보다 먼저 시작한 ‘로스쿨’ 첫회는 5.113%의 시청률을 보였다.

첫 방송에서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던 엘리트 검사 출신 형법 교수 양종훈(김명민)이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연행돼 충격을 안겼다.

로스쿨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처음이고, 여기에 살인사건으로 시작하는 미스터리 구조로 시청자들의 눈이 쏠렸다.

다만 양종훈의 소크라테스 문답식 강의를 강조한 장면이 원테이크로 촬영되고, 법리 논쟁을 숨 막히게 그려낸 장면에 대해서는 다소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다. 주고받는 대사가 많은데 워낙 속도가 빠르고 일부 배우의 발음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tvN ‘마우스’는 5.2%, MBC TV ‘오! 주인



님’은 1.5%~1.7%의 시청률을 보이며 수목극 시장에서는 2막에 들어선 ‘마우스’와 이제 갖

출발한 ‘대박부동산’, ‘로스쿨’ 간 3차 구도가 형성됐다.

/연합뉴스

카카오TV 예능 ‘체인지 데이즈’ 개그우먼 장도연이 진행한다

개그우먼 장도연이 카카오TV 오리지널 예능 ‘체인지 데이즈’ MC로 나선다.

카카오TV는 14일 ‘체인지 데이즈’에 대해 이별을 고민하는 실제 커플들을 출연시켜 여행을 통해 각자가 원하는 행복한 연애의 형태를 고민하도록 하는 포맷이라고 설명했다.

장도연은 ‘열정 언니’ 같은 매력으로 출연자들의 속마음을 헤아리며 ‘공감형 MC’로 활약할 예정이다.

장도연은 “단순히 두근거리는 로맨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인들이 각자의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연애를 통한 실패와 행복을 리셋(reset)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가져본다는 참신한 콘셉트에 흥미를 느껴 출연을 결정했다”고 했다.

다음 달 공개 예정.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탁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듣듯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50~6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문화신탁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

운암신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신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